

People & Life



행복한 자원봉사 기독병원서 7년째 암환자 돌보는 박소자 씨

“삶의 마지막 지켜주는 친구여서 행복”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린 이들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22일 오후 기독병원에서 만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박소자(66)씨. 환자들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박씨는 이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지난 2003년 2월부터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말기암 및 말기질환 환자를 받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박씨가 하는 일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손뼉·발뼉 정리에서부터 목욕까지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씨에게 보람된 일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친구가 되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면 두렵기 마련하다”며 “어린환자부터 여든의 노인까지 그네들의 친구가 돼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들에게 고마운 일이다”고 말했다.

박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긴 세월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때문이었다. 지난 1981년 무연고 환우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벌써 30여 년이 넘었다. 지난 2003년부터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호스피스 전문자원봉사인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4회씩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처음에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작은 일부터 해보며 시작한 것이 호스피스 자원봉사다”며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절반을 환자들에게 봉사해온 박씨의 나

이는 벌써 환갑을 훌쩍 뛰어 넘었다. 주위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본인의 건강부터 생각하라는 걱정 어린 충고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박씨는 “환우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며 “집을 나설 때 무거웠던 발걸음이 환우들과 시간을 보내고 병원을 나설 때는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고 답했다.

그녀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제 9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자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결실을 이뤘다.

박씨는 “이번 표창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며 “나이가 다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환우들의 친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스리랑카 교육훈장



부영그룹은 이종근 회장이 지난 22일 마하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공훈훈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이 회장이 스리랑카 교육 발전 및 한국-스리랑카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했고, 교육용 칠판 50여만개와 디지털 피아노 6만여대를 지원했다.

그는 또 수상 당일에 디지털피아노 3천대와 칠판 3만개를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시인 고은, 27일 전남대 응봉홀서 강연



고은 시인이 오는 27일 전남대 응봉포럼 강사로 초청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대학 국제회의동 응봉홀에서 ‘아시아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고은 시인은 1958년 문단에 등단한 뒤 시, 소설, 평론 등 문학 전 분야에 큰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불나비, 백두산, 만인보 등 150여권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의장,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5년 이후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시인이다.

동구청, 2010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평)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2010 복지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의료급여 등 보건복지 9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송기진 광은행장에 경찰의 날 감사패



송기진 광은행장 제65회 경찰의 날을 맞아 22일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로부터 경찰청장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송 행장은 그동안 추석과 설날, 연말연시 그리고 경찰의 날 등에 일선 경찰서들을 방문해 상금을 전달하고 일선 경찰의 노고를 격려해 왔다.

“영암 서킷 내년에는 더 멋질것”

F1 기자회견 메인 앵커 밥 콘스탄두로스 씨

“원더 풀, 내년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취재를 위해 영암 서킷을 찾은 F1 기자회견의 메인 앵커이자 유명한 F1프리랜서 기자인 밥 콘스탄두로스(Bob Constanduros)씨.

1985년부터 25년동안 한 대회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며 지금까지 무려 300여개의 F1그랑프리 취재했다는 콘스탄두로스씨는 갖 완공된 영암서킷의 첫 인상에 대해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든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영국 BBC의 F1해설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는 “트랙 등 경주시설이 매우 빼어나고 만나 본 드라이버들도 다들 뛰어난 서킷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노

면에 이물질이 많았지만 레이싱이 거듭될 수록 그런 이물질들이 다 제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숙박 관련 시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보통이고 올해가 첫 대회인만큼 그들도 곧 적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할 것 같았지만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다른 대회도 수도권 국제공항에서 만나질 이상 들어가는 곳이 많아 이곳이 특별히 외진 곳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경주장 주변에 식당이나 편의시



설이 없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콘스탄두로스 씨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취재를 하면 기자들도 힘들어 한다”며 F1 전문가들의 역할을 전담된 “하지만 내년에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영암서킷을 다시 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흥분이 된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우한 삶 노래로 승화 ‘인생역전’

‘슈퍼스타K 2’ 우승 허각



이제는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각은 생활고를 극복하고 우승자의

‘슈퍼스타K 2’ 최종 결승전에서 승자로 결정된 허각(25)은 “상급으로 가족들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각은 지난 23일 새벽 1시 넘어 진행된 결승전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솔직히 상급에 대해 긴 생각을 한 적 없었다”며 “그저 아버지, 형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우승으로 현금 2억원과 자동차 1대를 상급으로 거머쥐었고 ‘앨범제작’이라는 특전도 누리게 됐다.

허각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형과 끝까지 기다려 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며 우승의 기쁨을 전했다.

‘슈퍼스타K’에 대해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했는데

자리에 올라 팬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고 있다. 3살 때 어머니와 헤어진 그는 쌍둥이 형과 함께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으며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 생활 전선으로 나가야 했다. 천장 환풍기를 설치하는 기능공 생활도 했었고 소꿉물이나 백화점 등을 돌며 공연을 펼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 생업의 일환이었던 행사 가수 생활은 풍부한 가창력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희뉴스>

기아차·광주여대, 독거노인 초청 나들이 봉사



기아자동차 광주1공장(공장장 소순구) 임직원과 광주여대 대학생 30여명은 23일 광산구 임곡·삼도·보랑 일대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고창 선운산 나들이 봉사활동을 벌였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광주광일라이온스클럽 복지시설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지구 광주광일라이온스클럽(회장 박희진)은 광산구 삼계동 사회복지법인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방문해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광일라이온스클럽 제공>

농어촌공, 60대 농어업인에 돌보기 증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김종원)는 동강대 안경광학과 함께 지난 22~23일 ‘9회 농업박람회’에서 60대이상 농어업인 대상 돌보기 무료 맞춤 증정행사를 벌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보호요양원 봉사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조재현)는 최근 광주보호요양원 노인 대상 무료건강검진과 식사 수발, 요양원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건강관리협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 ▲최홍열·박영자씨 차남 규철(9) 경동계약 광주·전남 서부지점장)군 김상배·김숙자씨 삼녀 선정(목포 미즈아이병원 간호사)양=30일(토) 오전 11시 40분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2층(자스민홀) 017-602-2867.
- ▲안중국(풍전약품 감사)-박광휘씨 장남 영진(피서피클)군 박동구(일광건설 대표)-안해순씨 장녀 미진(디자이너)양=30일(토) 낮 12시 서울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18층(노블레스홀)
- ▲이승기·모계순씨 장남 의형군 임병남(서강정보대 교수)-이윤남씨 장녀 은주양=30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라루체 4층(루아르홀)
- ▲최수용(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류효숙씨 차남 창호군 박익양·

- 임현숙씨 장녀 지현양=11월 7일(일) 낮 12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3층(그랜드 볼룸) 신랑측 피로연 : 29일(금) 오후 5시 상록회관 F층(장미홀)
- ▲재광곡성군총향우회 10월 월례회 = 25일(월) 오후 7시 다래옥(교육대일) 018-620-0900.
- ▲재광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 개최 = 28일(목) 오후 6시 흥백회관. 062-228-3382.

종친회

- ▲장흥위씨 광주종친회(회장 위인백) 정기 모임 = 26일(화) 오후 6시 대성아크빌 011-602-9727(총무)
-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

장 정한영) 세거지 입학조 참배순례 = 30일(토) 오전 8시 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 ▲성모사당 노인방문요양 센터 = 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 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 의

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한국노년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 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외원 및 전남북지역 지회장하실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총민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 오 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 오 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정원 선발 = 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편 풋볼프장. 010-4604-4608.

▲진원강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 국비지원해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 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무산 태권무예술원 = 영어·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 미용, 양생, 호신, 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녀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관광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부음

▲김연순씨 별세 박남희·동희·승희·광희·명숙씨 모친상=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강봉룡씨 별세 태구·경구·희구·종구·명자씨 부친상=발인 25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615-4488.

▲최예례씨 별세 이상검·상재·상명·영순·영자·필순·순숙씨 모친상 = 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연순씨 별세 박남희·동희·승희·광희·명숙씨 모친상=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예례씨 별세 이상검·상재·상명·영순·영자·필순·순숙씨 모친상 = 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연순씨 별세 박남희·동희·승희·광희·명숙씨 모친상=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예례씨 별세 이상검·상재·상명·영순·영자·필순·순숙씨 모친상 = 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안요임 님(여/82세) 子/子婦: 송성권/김수정, 철권/김재현 女/孫: 문순/신홍철, 순남/유대중 •호실:201호 •발인:10월25일 •장지:영락공원	故 광옥군 님(남/56세) 子: 광재호, 재희 未亡人: 곡선영 •호실:101호 •발인:10월25일 •장지:영락공원
故 임동운 님(남/75세) 子/子婦: 임정길/이영일, 덕만/김성희 女/孫: 임희순/박복철 •호실:102호 •발인:10월25일 •장지:화산이영선영	

孝 金 浩 宗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한세혁·세현씨 모친상
 발인: 10월26일(화) 00시00분 연락처: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